

## 『파리의 풍경』에 나타난 1780년대의 교육 현실과 감정교육\*

정 해 수\*\*

(목원대학교 교수)

장 연 옥\*\*\*

(동아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이 글은 메르시에의 교육론이나 교육철학을 탐구하려고 작성된 것이 아니다. 작품 전체에 걸쳐 작가가 종종 모순된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일관된 사상 체계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파리의 풍경』에 개진된 교육에 관한 작가의 단편적인 생각들만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작품이 집필된 1780년대에 교육과 관련된 논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작가가 스스로 작품에서 공적이고 사적인 풍속,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 파리의 현재 상황 등과 같이 감동을 준 것들을 다루고자 했다면, 그 시대에 드러났던 여러 가지 논점들, 특히 교육과 관련한 내용들도 포함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파리의 풍경』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내용은 공동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작품은 1780년대의 감정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감정의 역사는 루소가 주장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메르시에는 루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므로, 메르시에가 자신의 작품에서 추구한 것은 루소가 말하는 공화주의 시민의 덕성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메르시에가 표현했던 공화주의 시민의 덕성이 대혁명 직후 혁명정부가 전면적으로 내세운 시민의 덕성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18세기 후반부터 대혁명기까지 감정의 역사는 일관된다고 말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임 (NRF-2017S1A5A2A03068711).

\*\* 1저자

\*\*\* 공동저자

수 있으며, 루소나 메르시에가 교육과 관련하여 주장한 것은 공화주의 시민의 양성 및 그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18세기 감정사, 공화주의 시민, 애국심, 공중교육

## 1. 들어가면서

메르시에의 작품을 두고 로버트 단턴은 “우리가 혁명 전야의 파리의 모습, 파리의 소리와 냄새와 느낌이 어땠는지 알려고 할 때, 그의 작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sup>1)</sup> 단언했다. 단턴의 이 언급은 『서기 2440년』에 대한 것이지만 당연히 메르시에의 주요작품인 『밤에 쓰는 모자』와 『파리의 풍경』에도 해당된다. 특히 메르시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대혁명 직전인 1780년대에 ‘발품을 팔아’ 『파리의 풍경』을 썼다. 이 작품에는 파리 거리를 걷다 작가의 눈에 포착된 다양한 모습들, 하층민에서부터 궁정 사람들까지 그들이 보여주는 습속들, 시궁창에서 왕궁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파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 대작은 작가 스스로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단순히 파리의 “건물, 교회, 기념물, 명소” 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파리의 “공적이고 사적인 풍속, 지배적인 사상, 파리인의 현재 상황, 요컨대 말도 안 되거나 또는 합리적인, 그러나 항상 변화하는 여러 가지 관습 중에서 [그]에게 감명을 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파리의 모든 것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나 소개가 아니라 작가/화자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들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비판적 분석을 하는 르포르타주 형식의 문학을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턴이 “양시앵 레짐 시대 사람의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는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계속 밝혀나가면서 삶을 전반적으로 재판에 회부한다”라고<sup>2)</sup> 한 것은 메르시에

1) 단턴, 로버트, 『책과 혁명』, 주명철 옮김, 도서출판 길, 2004, 213쪽.

2) 위의 책, 216쪽.

작품의 특성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메르시에의 글쓰기는 근본적으로 이전 세대 선배 철학자/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철학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18세기 후반의 독자들의 기대지평이 이전과 달라진데 따라<sup>3)</sup> 그들이 철학적 논증 위주의 글을 썼던 것과 달리, 메르시에에는 부단히 파리의 구석 구석을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관찰하여 세세한 리포트 형태의 글을 썼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 철학적이다. 특히 작가가 『파리의 풍경』을 집필한 시기는 공권력을 피해 오랜 기간(1781-1785) 스위스의 알프스 산자락에서 숨어 지낼 때였다.<sup>4)</sup> 그러니까 메르시에의 글쓰기는 다루고자 하는 대상을 더 잘 이해하고 정확히 그려내기 위해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를 조망하고 글을 썼던 계몽주의 선구자인 벨르(Pierre Bayle)가 구사한 이른바 외재적 글쓰기(exteriorité)에<sup>5)</sup> 다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메르시에의 글쓰기는 스스로 “화가의 붓만 사용하고 철학자의 성찰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 자체로 철학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독자들의 무지를 일깨우는데 집중했으나 대혁명 직전의 메르시에에는 화자를 안내자 삼아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사안에 대해 사유하도록 독려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굴르모는 이런 측면에서 메르시에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관찰하고 분석하여 독자에게 보고했기에, 이전 시대는 물론 동시대 계몽철학자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sup>6)</sup> 그의 글쓰기를 새로이 형성된 독자에 알맞은 글쓰기를 선택한 계몽 사상가의 새로운 “계몽교수법”이라고 부른다.<sup>7)</sup>

3) 단턴은 메르시에가 루소주의에 물든 대중을 위해 작품을 썼다고 주장했다. 위의 책, 211쪽 참조.

4) “나는 파리를 더 잘 묘사하기 위해 파리를 떠났다. 묘사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온전히 마음속에 그려본다. 나는 더욱 집중해서 그 대상을 관찰한다. 나는 평화롭고 안정된 곳에 체류하면서 수도 파리의 소음과 혼란, 그리고 악습들을 묘사하고 있다.(…) 오! 이러한 광경은 수도에서 받아들었던 생각들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이 작품은 12권 6책으로 번역되었음), 이영림 외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파리의 풍경』 IV, 8권, 675장 <알프스의 전망>, 464-465쪽. 이 서지사항은 앞으로 『파리의 풍경』으로 표기함.

5) Jean M. Goulemot, *La littérature des Lumières*, Bordas, 1989, p.41 참조.

6) *Ibid.*, p.162.

메르시에는 문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이류 작가로 자리매김하여 현대 연구자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작품의 사료적 가치가 크기에 그는 18세기 프랑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논거로 인용되는 중요한 작가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메르시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의 문학적 또는 철학적 면모도 사료적 측면도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파리의 풍경』 곳곳에서 강조된 애국주의적인 감정으로, 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작가가 머리말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작품을 썼다는 집필 의도를 분명히 강조했기 때문이다.

“내 붓이 참신한 행정가들에게 새로운 열성을 불러일으키고, 몇몇 적극적이고 고귀한 영혼의 동정심을 자극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나는 이 달콤한 확신이 있어야만 글을 쓴다. 그런 확신이 사라진다면 절필할 것이다.

모든 애국심에는 오랫동안 발에 밟히면서도 차츰 자라서 커지는 식물의 싹과 비교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싹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sup>8)</sup>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국가와 사회에 유용하게 쓰일 것을 확신하는 한편 독자의 감성을 불러일으켜 애국심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대목은 이전에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볼테르, 조쿠르(Jaucourt), 콰이에(abbé Coyer) 사제, 루소, 돌바크 등 몇몇 계몽 사상가들이 조국(patrie), 애국심(patriotisme) 등에 대해 간헐적으로 필요에 의해 약간의 언급만 하고 지나친데 반해 메르시에는 애국심을 작품 구성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개념들에 대해 1780년대 이전의 지식인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메르시가 느닷없이 독자들을 향해 애국심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혁명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폴레옹 시대가 열렸던 1801년, 메르시에게 출판한 『신조어 사전』의 「애국심」 항목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7) “Par le récit de témoignage, la philosophie s’adapte à de nouveaux publics qui veulent substituer à la réflexion le regard. Être comme présent aux choses et aux événements, avec le guide narrateur, s’émouvoir avec lui, éprouver des émotions, voilà la nouvelle pédagogie des Lumières.” *Ibid.*, p.163.

8) 『파리의 풍경』, I, 1권, 「머리말」, xxvii쪽.

준다. 이 항목의 내용이 너무도 간결하여 오히려 선명하지 않지만, 『파리의 풍경』 머리말에서 작가가 언급한 애국심과 같은 의미라고 여겨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영(Edward Young)을 인용하여 “애국심이란 小 카토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격동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숭고한 열의”라고 간단하게 정의한<sup>9)</sup> 내용은 사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을 암시한다. 인용된 小 카토는<sup>10)</sup> 계몽주의 시대 전반에 걸쳐, 그리고 혁명정부시대에서도 공화주의의 수호자로 추앙을 받았던 인물이 아니던가? 「애국심」 항목이 공화주의적 애국심을 암시한다면 우리는 메르시에의 애국심이 혁명정부 지도자들이 말하는 애국심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혁명기 지도자들이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국민 또는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려는 가장 큰 수단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윌리엄 레디는 혁명 초기 국민의회 회의록을 인용하면서 대혁명 초기 국민의회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혁명 지도자들이 중요시했던 것은 입법 내용보다 이타적 감성과 행동의 고양이라고 주장한다. 이타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에 승복하는 것을 자연적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일이며,<sup>11)</sup> 더

9) “Young a dit : Le patriotisme est une fièvre sublime qui, dans ses convulsions, triomphe de la nature. Caton en mourut.” Louis Sébastien Mercier, 『Patriotisme』, *Néologie, ou vocabulaire de mots nouveaux*, Moussart et Maradan, 2 vol. An IX - 1801. tome second, p.172. 이 작품은 프랑스국립전자도서관 Gallica에서 열람할 수 있음.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50792d/f1.image>(검색일: 2019.02.10.)

10) 小 카토(Marcus Porcius Cato Uticensis)는 大 카토의 증손자로서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이자 스토아학과 철학자이다. 그는 공화정을 유지하려는 폼페이우스 편에 서서 공화정의 전통을 무시하는 카이사르와 항쟁했으나, 폼페이우스 세력이 카이사르에게 패하자 자결했던 인물이다. 비극적이지만 영웅적인 그의 자결은 많은 화가에게 영감을 주어 카토의 죽음에 대한 여러 작품이 남아 있다.

11) 윌리엄 M. 레디는 혁명정부가 루소에게서 감상주의에 기초한 정치 논리를 찾았다고 주장한다. 즉 자아의 내면에 순결과 덕성이 있다는 루소 사상의 골간을 바탕으로 자코뱅은 덕성이 있는 사람은 덕성이 있는 타인과 언제나 잘 어울려서 융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코뱅의 감상주의는 공동체적인 동시에 개인주의적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타적 열정과 자기애적 열정의 조화를 강조한 새프츠베리의 도덕관에 근접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도덕적 감각이 내재되어 있는바 사랑, 연민, 박애, 감사함 등과 같은 공동체적 감성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적 감성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혁명기의 감상주의는 이러한 도덕관에서 출발하여 인민, 자유, 민족

나아가 공동체적이고 애국적인 행위로 여겼다는 것이다. 특히 혁명 초기 자코뱅 지도자들은 자연적 감정에<sup>12)</sup> 기초한 공동체적이고 애국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자코뱅 클럽과 결합된 정치클럽을 감정의 피난처이자 민주적인 공간으로 작동시켰음을 강조했다. 이런 공간에서는 이성보다 과도한 열정에 기대어 열변을 토하는 분위기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레디는 콩도르세가 열정이 아니라 이성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을 촉구한 것은 이런 과도한 열정의 위험성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sup>13)</sup> 자연적 감정에 기초한 애국주의는 당시의 정치적 행위와 직결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의 역사’를 쓰기 위해 전체 내용에서 일부를 누락했든 또는 혁명정부가 극도의 감정적 애국주의를 국가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았음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든, 레디는 마치 혁명기 지도자들이 이상적인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또는 시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묶으려고 애국주의를 급조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다시 메르시어로 돌아와 생각하면 혁명정부가 내세운 애국주의는 레디가 주장(?)한 것처럼 대혁명 직후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고 대혁명 이전에 이미 파리 사람들 사이에 파급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했던 메르시어의 작품을 통해 대혁명 이전에 형성된 애국주의를 탐구하면 대혁명 과정에서 강조된 애국주의는 1780년대 메르시어가 강조한 그것은 동일선상에 놓여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파리의 풍경』에 나타난 애국주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혁명과 관련하여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혁명정부의 애국주의를 다시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

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도입했다고 레디는 주장한다. 윌리엄 M. 레디, 『감정의 향배』, 김학이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2부 6장(263-318쪽) 참조.

12) 프랑스의 바니도 레디와 비슷한 시기에, 레디와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대혁명 기간에 공동체의 사회성 형성에서 감정(emotion)과 감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적했다. 그녀는 특히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2조는 감정과 감성의 권능으로 압제에 저항할 권리를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ophie, Wahnich, *Les émotions,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 présent*, CNRS Éditions, 2009, pp.64-67 참조.

13) 윌리엄 M. 레디, 앞의 책, 283쪽.

이 연구에서 우리는 먼저 『파리의 풍경』에 나타난 1780년대 감정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8세기 후반은 루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시대로서 메르시에의 글쓰기도 루소주의를 비켜갈 수는 없다.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루소와의 연관성이 전제된 감정의 흔적을 탐구한 후,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갈망한 메르시에가 구체적 실현 방안의 전 단계인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비판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시대에 필수적인 국민의 정서, 즉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공화주의 덕목들,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탐구할 것이다.

## II. 『파리의 풍경』에 나타난 1780년대 감정의 흔적

1762년 루소의 『에밀』의 출간은 당시 지식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물론 몽테스키외, 볼테르, 디드로 또는 엘베시우스 등도 인간의 정체성은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으나 루소처럼 한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성인이 되어 결국 시민이 되어가는 교육과정을 온전하고도 구체적으로 구현한 철학자는 없었다. 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루소 이후였던 것이다.<sup>14)</sup> 루소는 『에밀』에서 “인간이자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sup>15)</sup> 교육의 목표로 삼고 교육 이론을 전개했다. 루소는 인간이란 늘 인간적인 욕망과 사회적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지닌 이러한 양면성은 사회적 조화

14) 루소의 『에밀』이 출판된 이후 교육과 관련된 많은 저작 또는 플랜이 출간되었다. 몇몇 예를 들면, 기통 드모르보(Guyton de Morveau)의 *Mémoire sur l'éducation publique*(1764), 모베르 드구베(Maubert de Gouvest)의 교육안인 *Le temps perdu ou les écoles publiques*(1765), 엘베시우스의 *De l'homme, de ses facultés intellectuelles et de son éducation*(1773), 디드로의 교육안인 *Plan d'une université ou d'une éducation publique dans toutes les sciences*(1775), 콩디약의 교육론 *Cours d'étude pour l'instruction du Prince de Parme*(1775), 필리뽕 드 라 마들렌느(Philippon de la Madeleine)의 *Mémoire sur l'éducation publique*(1784) 그리고 콩도르세의 *Rapport sur l'instruction publique*(1792) 등이 있다.

15) 김용민, 「플라톤과 루소의 시민교육론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51(4), 2017, 28쪽 참조.

와 행복을 저해하므로 인간을 시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루소가 직면한 당면과제였다. 인간의 성향과 사회적 의무 사이의 대립은 자연 상태에서나, 또는 “공공의 선이 요구하는 것을 인간이 자발적으로 원하게 되는”<sup>16)</sup> 이상적인 공화제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성향과 의무 사이에 남아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하여 개인의 의지가 일반 의지와 일치할 때, 인간은 시민으로 성공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자신을 “조국과 동일시”하고 “개인의 이익은 공동의 이익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고 느끼는”<sup>17)</sup> 덕성을 통해 자기애가 공동체로 확장하도록 만든다. 자기애(amour de soi)를 “전체에 속하는”, 즉 공동체에 속하는 감정으로 대체해야만, 사회적 의무라는 것이 속박상태나 희생의 개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은 철학자 루소에게 핵심적 사안이며, 앞서 언급한 ‘인간이자 시민’은 한편으로는 자연인 속성을 지닌 존재로 ‘자유’를 향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속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 공동체에 속하는 감정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루소는 무엇보다도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한다.

그러나 루소가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에밀에게 설파한 것은 『에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이다. 루소는 에밀을 완전한 인간으로 교육하기 위해 갓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받아야 할 다양한 내용의 교육, 즉 신체교육, 감각의 훈련, 소유나 노동에 대한 학습, 도덕 및 종교교육을 각 시기별로 실시하여 완전한 인간, 즉 자연인으로 만드는데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에밀에게 진정한 시민에게 필수적인 조국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깨닫고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한다.

만일 내가 너에게 시민의 의무에 대해 말하면, 너는 아마 조국이 어디에 있는냐고 내게 물을 것이며, 그러고는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랑하는 에밀, 그렇다면 네가 틀린 것일 게다. 왜냐하면 조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는

16) Géraldine Lepad, *Jean-Jacques Rousseau et le patriotisme*, Honoré Champion, coll. « Les Dix-huitièmes Siècles », 2007, p. 42에서 재인용.

17) *Ibid.*, p.67과 p.15에서 재인용.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오, 에밀! 자기 나라에 아무런 빛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 그는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 즉 그의 행위의 도덕성과 덕목에 대한 사랑을 자기 나라의 덕택으로 얻은 것이다.<sup>18)</sup>

루소가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애국심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에밀』의 첫 부분에서 루소가 로마와 스파르타 시민을 예로 든 것처럼<sup>19)</sup> 결국 자기애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인간상, 즉 ‘인간이자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최종적인 단계인 것이다. 루소의 애국심에 대한 이러한 신념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시민에 대한 애국교육을 강조한 『폴란드 정부론 *Considérations sur le gouvernement de Pologne*, 1772』<sup>20)</sup>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있는 만큼 일관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메르시에의 작품에 묘사된 애국주의가 루소의 그것과 다르지 않

- 
- 18) 장 자크 루소, 『에밀』, 김중현 옮김, 한길사, 2007(초판 2003), 856-857쪽. 이 서지사항은 앞으로 『에밀』로 표기함.
- 19) 루소는 스파르타의 시민을 예로 들며 ‘시민’에 대한 개념을 어렵듯이 드러내고자 했다: “다섯 명의 아들을 군에 보낸 스파르타의 한 어머니가 전투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노예가 돌아왔다. 그녀는 떨면서 그에게 소식을 물었다. “주인마님의 아드님 다섯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이런 비천한 인간 같으니라구. 내가 네게 그것을 물었더니?”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신전으로 달려가 신에게 감사했다. 바로 그것이 시민이라는 것이다. 위의 책, 66-67쪽.
- 20) 1768년부터 스타니스라스 왕에 대항하여 투쟁하던 폴란드 귀족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강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Michal Wielhorski 백작을 파리에 밀사로 파견했다. 1770년경 루소는 백작을 만나 폴란드 사정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 대화를 토대로 80여 쪽 분량의 『폴란드 정부론』을 1771-2년에 걸쳐 집필했다. 이 에세이는 1782년 처음 출간되었으나 1773년부터 이미 필사본 형태로 시중에 유포되었다. 여기에서 그림(Grimm)은 이 에세이집은 “많은 부분에서 박식한 만큼 또 다른 이면에서 공허한 생각들”로 가득하다고 빈정거리면서, 한가한 철학자가 유희로 유포피아적인 정부를 그려낸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respondance inédite De Grimm et De Diderot*, 16 tomes, Furne, 1829. Janvier 1773, p.335 참조. 이 서지사항은 다음 전자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archive.org/stream/correspondancein00grim/correspondancein00grim\\_djvu.txt](https://archive.org/stream/correspondancein00grim/correspondancein00grim_djvu.txt) 한편 『폴란드 정부론』의 원전은 전자자료 [http://www.espace-rousseau.ch/f/textes/considerations\\_pologne.pdf](http://www.espace-rousseau.ch/f/textes/considerations_pologne.pdf)에서 열람할 수 있다.(검색일: 2019.02.10.)

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루소의 추종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1771년 출판된 『서기 2440년』<sup>21)</sup>에서뿐만 아니라 『파리의 풍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대혁명 직후 『루소론』에 이르기까지 루소에 대한 찬양과 존경을 표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메르시에가 화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조국, 애국심, 시민 등에 대한 단상을 피력한 것은 사실 『에밀』과 『폴란드 정부론』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감정에 기반을 둔 이상사회’<sup>22)</sup> 지향했던 루소의 철학에 따라 메르시에는 과도할 만큼 열정적으로 감정을 고양했던 것이다.<sup>23)</sup> 그의 작품에는 모지의 표현처럼 “환희, 사랑, 투쟁, 열망, 영광, 인류애, 희생” 등, 인간을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덕목을 실천하는 것, 즉 공동체 또는 공중의 행복을 위해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루소가 프랑스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면, 메르시에는 자신의 작품 『서기 2440년』과 『파리의 풍경』에서 루소의 의지를 이어받아 사회를 면밀히 관찰·검토하고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루소는 물론 메르시에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이러한 감정들은 계몽주의 시대에 철학자들이 우러러 보았던 공화주의 덕목들이 아니었던가? 메르시에가 고대 로마 및 스파르타의 공화주의와 애국심을 열렬히 찬양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1) “Messieurs, je suis charmé, édifié de trouver ici J. J. Rousseau tout entier. Quel livre que cet Émile! Quelle âme sensible répandue dans ce beau roman de la Nouvelle Héloïse!” Louis Sébastien Mercier, *L'an deux mille quatre cent quarante*, Londres, 1771, p.219. 『서기 2440』에서 묘사된 왕세자가 에밀처럼 루소의 교육론에 의거한 교육을 받은 후 왕위에 오른다는 내용에서도 메르시에는 루소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월리엄 보이드, 『루소의 교육이론』, 김안중/박주병 역, 파주, 교육과학사, 2013, 210-212쪽 참조.

23) “Son enthousiasme exalte indifféremment toutes les manifestations extrêmes de la sensibilité. Il aboutit à une sorte d’apologie de l’intensité. Plaisir, amour, action, ambition, gloire, philanthropie, sacrifice, permettent à l’homme d’accéder à la véritable existence.” Robert Mauzi, *L’idée du bonheur dans la littérature et la pensée françaises au XVIIIe siècle*, Arman Colin, 1965(1ère éd. 1960), p.437 참조. 한편 모지의 이러한 평가는 『파리의 풍경』과 같은 시기에 집필된 『밤에 쓰는 모자 Mon bonnet de nuit(1784)』에 관련된 것이다. 이 작품은 『파리의 풍경』과 주제만 달리할 뿐, 구성과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고대 공화국들이여! 그대들의 잔해를 보면 그대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왕정의 가장 화려한 기념물들도, 시간과 야만의 공세에서 살아남은 그대들의 잔해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신이여! 우리는 자유로운 정치체제의 장엄한 업적 앞에서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sup>24)</sup>

키케로에 의하면 공화국은 공중의 것이다.<sup>25)</sup> 그러나 공중이란 모든 부류의 인간 집단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권리, 법 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화국 시민은 정의에 따라 사적 또는 소속된 집단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메르시에는 공화주의자들과 군주의 신민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즉 “신하는 예의 바르고 나약하고 강단이 없는 대신, 기만적인 사치를 즐기는 것이 유일한 위안”라고 치부하는 한편 “오로지 공화주의자들에게서만 영혼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애국심을 지탱해 주는 거친 성격, 단호한 태도, 생기 있는 눈을 볼 수 있다”고 옹호한다.<sup>26)</sup> 또 다른 예로 든 탐욕스런 상인과 동료 시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시민들,<sup>27)</sup> 또는 전쟁터에 보내질까 두려워하며 민병대를 뽑기 위한 추첨에 떨며 임하는 시민들은<sup>28)</sup> 공동체 전체의 선보다는 언제나 개인 혹은 계급의 선이 우선이다. 이들에게는 공유된 선에 대한 이해가 없고 조국에 대한 사랑, 즉 애국심도 없으므로 시민적 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적 덕성에 가장 주요한 열정을 불어넣는 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때 공화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애국심이다.<sup>29)</sup> 작가가 파리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파리사람들 대부분은,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시민적 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때, 『파리의 풍경』을 저술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야말로 작가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24) 『파리의 풍경』 I, 1권 37장 <고대>, 82쪽.

25) 조일수,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제 106호, 2016, 161쪽에서 재인용. 이후의 몇 문장은 조일수의 글을 재구성한 것임.

26) 『파리의 풍경』 I, 1권 20장 <부르주아>, 39-40쪽.

27) 위의 책. 『파리의 풍경』 I, 1권 20장 <부르주아>, 39-40쪽.

28) 『파리의 풍경』 I, 2권 108장 <민병대>, 244-245쪽.

29) 조일수, 앞의 논문, 162쪽.

### Ⅲ. 구습 타파를 위한 고찰 : 교육 현실과 사치의 경우

애국심 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동시대 현실을 다루는 만큼 그가 여러 가지 악습에 대해 비판하는 것, 특히 당시의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교육과 사치 등의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비판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메르시에는 이미 1771년 출판된 『서기 2440년』에서도 현실에서 문제가 되었던 구습을 타파하고자 했고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계를 제시했다. 이 작품에서도 교육 현실과 사치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 1.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

메르시에는 『에밀』의 저자 루소나 『에밀』을 논박한 『인간론』의 저자 엘베시우스 또는 입법안으로 의회에 「공교육안」을 제출한 콩도르세처럼 진지한 교육론을 주창한 이론가는 아니다. 교육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성찰과 저술활동을 해본 경험도 그에게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교육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대혁명 전야에 논의 되었던 다양한 교육적 쟁점들을 그의 글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시에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우선 스스로 18세기 교육 현장의 산증인으로서 비합리적이고 무용한 교육이 각 급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23세가 된 1763년부터 1765년까지 보르도의 마들렌느 콜레주의 수사학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혁명기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하는 국민공회 교육위원회에서<sup>30)</sup> 활동했을 만큼 교육정책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인정받았다. 그가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역시 “계몽사상의 세례를 듬뿍 받은” 철학자들의 일원이란 사실이다. “볼테르와 루소는 그의 스승이었고 콩도르세와 엘베시우스는 동료였다. 그는 살롱, 문학 클럽, 카페에 드나들며 그들과 교류하고 지적 토론을 벌인 지식인이었다.”<sup>31)</sup> 그런데 『에밀』의 출간 이후 교육의 문제는

30) <http://dictionnaire.sensagent.leparisien.fr/Comit%C3%A9%20d'instruction%20publique/fr-fr/>(검색일: 2019.02.10.)

31) 『파리의 풍경』, I, 1권 viii쪽에서 요약 인용함.

계몽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천착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국가』에서 플라톤이 정치란 “영혼을 돌보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영혼의 돌봄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입법, 정치, 교육은 동일하다”고<sup>32)</sup> 갈파한 것처럼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려는 사상가들에게 교육은 언제나 정비해야 할 분야였다.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구성원, 즉 “완전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는 계몽철학자들의 당면 과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버코웨이가 지적한 것처럼 메르시에의 교육관은 종종 모순적이고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sup>33)</sup> 공화주의와 시민적 덕성을 역설하던 그는 정작 작품에서 이상적인 정치제도로 왕정을 내세우곤 한다. 전원생활을 강조한 루소를 찬양하는 메르시가 대도시 파리의 ‘풍경’을 애착을 가지고 그려내는 것 자체도 이미 모순이 아닐까? 그의 주장은 문맥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종종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메르시에의 관심은 자신의 교육철학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 그의 일관된 교육사상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의 『파리의 풍경』은 당시에 제기된 다양한 교육적 사안을 독자들이 읽고 판단할 것을 제안하는 장(場)이다. 이런 이유로 그의 작품을 통해 대혁명 직전에 교육의 문제를 두고 논의되었던 여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이 장(章)의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전술한 것처럼 메르시가 『파리의 풍경』을 집필할 때 화두로 삼은 것은 무지몽매한 대다수 시민들을 “계몽되고 애국적인” 시민으로 양성하는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런 시민들을 만들 수 있을까? 제도권 교육을 통해 이러한 과업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이나 한 것인가? 메르시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 일은 기존의 교육현실을 직시·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교육의 악습은 제도권 교육으로서, 특히 기존의 교육기관은 메르시가 말하는 시민을 육성할 수 없으므로 모든 교육기관은 작가의 끊임없는 비판 대상이었다. 그가 가장 신랄하게 공격한 학교는 콜레주였다.<sup>34)</sup> 종합 콜레주이든

32) 김용민, 앞의 논문, 31쪽 참조.

33) “(…) depuis le dix-huitième siècle, les détracteurs de Mercier lui reprochent les continuel revirements de sa pensée: ce reproche n’est certes pas immérité.” L. Berkowe, “Louis-Sébastien Mercier et l’éducation”, *MLN*(Modern Language Notes), Vol.79 No.5, 1964, p.497.

단과 콜레주이든<sup>35)</sup> 또는 콜레주 데 카트르나시옹이나 왕립 콜레주이든 작가의 눈에는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무용한 학교일뿐이다. 종합 콜레주는 가난한 학생들을 교육하여 보통 서기로 사회에 진출시키는데 이들은 사회에서 오직 돈과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기 위해 일한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학생들이 10년을 공부해도 10명 가운데 10여명만 라틴어를 깨우치고 졸업하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sup>36)</sup> 메르시에 자신이 수학했던 콜레주 데 카트르나시옹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가장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만, 동시에 유능한 선생과 배우는 학생이 가장 빈약한 곳”<sup>37)</sup>이다. 왕립 콜레주에 대해 말하자면 “선생은 엉터리로 벌고 학생은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문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만큼 교사는 무익한 존재로서 무익한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메르시에에는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것보다 책을 통해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

“지금은 라무스의 시대와는 거리가 먼데,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기괴한 수업을 아직도 하고 있다. 책이야말로 이성적인 인간의 진정한 교사이다. 책이 있으니 교수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5~30세 남자들이 감식안이 전혀 없으면서 끊임없이 감식안에 대해 떠드는 교사의 수업을 들으러 가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또 다른 교사는 번역은 안 하고 설명만 하거나, 설명은 안 하고 번역만 한다.”<sup>38)</sup>

34) 루소 역시 콜레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나는 콜레주라고 일컬어지는 그 우스운 시설을 공공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상류 계층의 교육 또한 공공 교육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반되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그 교육은 그 두 가지 목표를 다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교육은 언제나 타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만 생각할 뿐이 이중 인격의 인간을 만들어 내는 데 적합한 교육일 뿐이다. 그런데 그 교육의 증거는 모두에게 나타나기에,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속이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교육은 공연히 들이는 수고일 뿐이다.” 『에밀』, 68쪽.

35) 『파리의 풍경』, I, 1권, 81장 <콜레주 등>, 188쪽의 주석에서 종합 콜레주와 단과 콜레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36) 위의 책, 188-189쪽.

37) 『파리의 풍경』, III, 5권, 405장 <콜레주 데 카트르나시옹>, 108쪽. 콜레주 데 카트르나시옹에 관해서는 이 장의 주석에 상세히 기술되어있음.

38) 『파리의 풍경』, III, 6권, 515장 <왕립 콜레주>, 410쪽. 왕립 콜레주에 관해서는 이 장의 주석에 상세히 기술되어있음. 피에르 라 라메, 일명 페트루스 라무스

소르본 대학에 관한 글에서 작가의 비판은 절정에 다다른다. 소르본 대학의 해악은 무엇보다도 암흑의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타락시켰고” “인간을 합리적으로 만들기는커녕 맹목적이 되게 만든” 신학의 본산이라는 점이다. 이 대학은 종교를 배경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계몽의 세기에도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내리려고 하여” 그 결과 “기상천외한 궤변들이” 생겨나게 만든 운상이다. 도덕이든, 역사이든 또는 과학까지도 소르본의 결정에 모든 학문분야를 복종시킴으로써 학문을 왜곡했고, 모든 이념의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소르본은 그 “기괴한 작업”으로 “가장 경악스러운 모순을 낳은” 가짜 지식저장고일 뿐이다.

“소르본 대학이 지난 3세기 동안 말하고 출판해온 모든 것을 다 모으면 이상한 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의 당치않은 추론도, 그처럼 심각하고 터무니없는 광기의 장면을 연출하지는 않았다. 이는 소르본 대학이 끊임없이 교묘한 이론들을 만들어 내려고 했고, 어떤 다른 신학자들보다 더 박식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괴함이 기괴함과 싸우는 꼴이니 그 결과는 뻔하다.

소르본 대학의 구성원들이 내면적으로는 스스로를 비웃는 것처럼, 몇몇 현자가 나타나 저열한 오류를 바로잡고 소르본의 신학을 조롱하지 않았더라면, 소르본 대학은 인간의 사고력을 완전히 망쳐놓았을 것이다.”<sup>39)</sup>

종교는 소학교에서도 큰 해악을 끼친다. 메르시에의 눈에 소학교도 스콜라 교육의 수많은 악습이 행해지는 곳으로서 아동폭력이 일상화된 공간이다. 소학교의 교육자들이 너무 잔인하고 엄격해서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되는데,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자가 교사이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파리 대주교인 크리스토프 드 보몽이 교리문답서에서 “명예를 위해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때리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학교는 늘 공포와 눈물, 그리고 신음이 가득한 곳이다.

---

(1515~1572)는 왕립 콜레주의 철학과 웅변술 교수였음.

39) 『파리의 풍경』, 1, 1권, 83장 <소르본 대학>, 194쪽.

“사람들은 사랑스런 어린이들을 괴롭힌다. 그들은 매일같이 벌을 받는다. 어린 나이의 약한 아이들이라면 아마도 자신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학교 내부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아이들의 뺨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성인 남자도 어린이도 하닌 것처럼 울부짖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오직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인 독선적인 교육자의 모습도 보인다. 그는 채찍과 회초리로 무장한 채 인생의 초년생들을 무자비하게 대한다.”<sup>40)</sup>

이렇게 볼 때 메르시에가 바라본 교육 기관과 교육자는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무용한 기관이고 집단이며, 이들은 멸절한 학생들을 받아들여 터무니없이 교육시켜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 기생하는 미래의 룸펜을 양성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작가는 공교육을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부질없는 헛것으로 치부하며 사교육을 옹호한다.<sup>41)</sup> 물론 머크웨이도 잘 지적한 것처럼 아이를 문명으로 타락한 사회에서 격리하는 차원에서 사교육을 옹호하는 루소적인 차원은 아니다.<sup>42)</sup> 파리를 사랑한 메르시에가<sup>43)</sup> 말하는 사교육이란 가정에서 가정교사를 통한 교육이 아니라 책을 통한 교육을 말한다. 작가는 <왕자의 탄생> 장(章) 전체를 갖 태어난 왕자가 왕위에 오르기 전 갖춰야 할 덕목과 의무를 공개서한 형식으로 작성했다. 9쪽에 이르는 이 장(章)의 대부분은 교육에 관해 할애했으나 가장 중

40) 『파리의 풍경』, I, 2권, 119장 <소학교들>, 268쪽.

41) 메르시에는 1796년 7월 10일(22 messidor an IV) 제출한 법안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L’instruction publique est un beau fantôme qui en impose de loin ; de près, elle n’a aucune réalité ; c’est qu’il n’y a que l’instruction particulière ou domestique qui grave sur les cerveaux en traits durable.” L. Berkowe, *op. cit.*, pp.504-505에서 재인용.

42) *Ibid.*, p.505.

43) 메르시에는 루소와 달리 도시 옹호론자이다 : “(…) 거대한 수도가 없다면 국민에게 예절도 재력도 교육도 기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도시는 농촌을 삼켜버리지 않는다. 대도시는 재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농촌을 더욱 번창하게 할 뿐이다.” 『파리의 풍경』, V, 10권, 76장 <잘못된 생각의 교정>, 260쪽. 또 다른 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파리는 문필가의 조국이다, 단 하나의 조국이다. 이것이 내 좌우명이다. 왜냐고? 첫째, 교육, 도서관, 강의, 계몽된 사람들의 중심 지이기 때문이다.” 『파리의 풍경』, VI, 12권, 959장 <파리, 또는 은둔자>, 278쪽.



요한 것은 책과 독서의 강조다.

“읽어라, 주위 사람들이 그대에게 날마다 말해주는 것과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읽어야 한다.(…) 읽고 은밀히 검토하여 비교하라. 이제까지 존재한 모든 공화국의 역사를 잊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꿈꾸게 할지니. 책이 그대의 자문단보다 더 잘 결심하게 만들지니. 신의 선물이라 할 인쇄술은 그대에게 왕의 임무를 가르쳐 주리라.(…) 읽어라, 책에서 친구를 찾아라. (…) 사람들은 그대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그대를 속일 것이다. 그러나 책은, 책은 진정한 가정교사이다. 그것은 공적인 가르침을 준다. 그러므로 책이 그대의 자문위원이다. 국민의 외침, 이것은 그대의 행위를 조절해 준다. 모든 것에 빛이 들어간다. 모든 것을 보고, 가늠하고, 계산할 수 있다. 모든 부분이 상응하는 데서 유일한 원동력, 통일과 상식의 힘이 나온다. 바로 이 힘이 낡은 일상의 굴레, 간계, 형식, 외교적 신기루, 내각의 우스운 독단을 억누르리라.”<sup>44)</sup>

공교육에 대한 철저한 불신은 왕자의 교육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파리의 풍경』을 집필할 당시, 철학자/작가에게 교육의 현실은 조그만 희망도 보이지 않을 만큼 참담한 것이다. 한 교회에서 60여명이나 되는 소녀들과 성직자교사 사이의 부질없는 교리문답 내용을 소개하며 “아, 공공교육이여, 절실한 교육이여, 너는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구나”<sup>45)</sup>라고 탄식한 것은 암울한 교육현실을 안타까워한 동시에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설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사치에 대한 비판

어떤 면에서 『파리의 풍경』을 관통하는 정신은 반 애국적 행위를 비판하고 애국적 행위를 고양하는 일이다. 반애국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로 메르시에가 우선적으로 지목한 것은 ‘사치(luxe)’인 바,<sup>46)</sup> 개인과, 공동체, 국가, 더

44) 『파리의 풍경』, III, 5권, 414장 <왕자의 탄생>, 144-147쪽.

45) 『파리의 풍경』, III, 5권, 378장 <교리문답>, 50쪽.

46) 한편 1730년대 잉글랜드의 버나드 맨더빌, 프랑스의 멜롱(Jean-François Melon)과 볼테르는 ‘사치’와 관련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이 논쟁을 통해 금융과

나아가 인류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메르시에는 파리에서 “경박한 사치를 미친 듯이 좇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관찰했다. 이들은 “새로운 종류의 환락을 연구하는 데 열을 올리며”, “겉만 번지르한 사치로 장식되지 않은 모든 것을 경멸하고 거만을 떤다.” 그러나 이런 “사치는 사람을 더욱 탐욕스럽고 불안하게 만들 뿐인데”, 더 심각한 것은 파리 사람들이 “미덕, 이성, 검소함, 절제” 등 시민적 덕성을 조롱하여 건강한 공동체 구성을 방해하는 한편 자신들 스스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sup>47)</sup> 가난한 개인들로서는 “사치의 놀라운 발전 때문에 가난은 더욱 참기 어려워”지며 시민들 간에 “증오의 골은 깊어가고, 국가는 두 계급으로 나뉜다.” 즉 소수에 집중된 부는 가진 사람에게나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은 공동체 내부에서 “불화와 영원한 분열”을 야기한다.<sup>48)</sup> 고관과 왕실이 저지르는 사치, 즉 “색다른 것들, 그림, 다이아몬드, 값비싼 금은 세공품, 가구, 사치스런 장식품, 축연, 장비들, 영국식 정원” 등에 드는 비용은 “제국의 막대한 재산을 고갈시키고 파괴하고 탕진”하고 “냉혹하고 인색해지게 만들고”, “공정해지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조

---

자비를 미덕으로 삼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위선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치는 산업을 성장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임을 주장했다. 물론 김태훈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몽테스키외와 디드로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특히 디드로는 좋은 사치와 나쁜 사치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세기 프랑스에서의 ‘사치 luxe’에 대한 논쟁 : 볼테르, 루소, 디드로의 견해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99집, 2014.) 그러나 18세기 전체에 걸쳐 대부분의 계몽철학자들은 ‘사치’를 옹호하는 가운데 계속 이 문제를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었다. 물론 루소와 그의 많지 않은 지지자들은 학문과 기술 그리고 사치에 대해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PROVOST Auderey, *Le luxe, les Lumières et la Révolution, Champ Vallon, Seyssel*, 2014, p.8 참조. 그리고 이런 점에서 메르시에는 루소와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볼테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는 III, 6권 515장 <왕립 폴레주>, IV, 7권 555장 <프티퐁케르크>, IV, 8권 607장 <볼테르의 승리, 자노>, V, 10권 806장 <예수 그리스도>, VI, 11권 938장 <작가들의 고생>, VI, 12권 1014장 <처치 곤란한 작시가> 등에서 볼테르의 사상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신랄한 공격을 공개적으로 퍼부었다.

47) 『파리의 풍경』, I, 1권, 19장 <부자연스런 욕구>, 37쪽.

48) 『파리의 풍경』, I, 1권, 15장 <가난뱅이의 불행>, 29쪽.

국의 영광을 파괴”한다.<sup>49)</sup> 루이 14세가 파리로 개선할 당시 트론 광장에 개선문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작가가 안도한 이유는 “사치스런 전쟁 경비로 이미 기진맥진해 있는 바로 그 민중들에게서 탈취한 엄청난 금액의 비용”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왕들의 자만심을 부추기고 확장시킴으로써 그 왕들을 파멸시키기”<sup>50)</sup> 때문이다. 사치는 한 국가를 멸망케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메르시에는 알렉산드로스가 아테네를 정복할 당시 그리스인의 사치를 예로 들었다.

장군들의 무능함과 훈련 부족은 사치의 결과였다. 사치는 나태함을 초래했다. 사람들은 관능적인 달콤함을 부추기는 모든 기예에 빠져버렸다. 그들은 이러한 불행의 주요 요인에 익숙해지고, 전쟁 이론에 무지해졌다. 사람들은 귀부인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화려한 열병식을 거행했다. 그들은 병사가 무희처럼 회전하고 일렬로 정렬하는 것을 원했다. 그들은 남자도 국사도 그들 선두에 있는 적들도 분간하지 못했다. 요리사와 보석, 의상이야말로 사람들이 무너지고 요리와 식기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는 요인이었다.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와서 죽임을 당하거나 전쟁포로가 되었다.<sup>51)</sup>

메르시에가 ‘사치’에 대해 전방위 비판을 하는 이유는 “공화국에 진지하게 몰두하는” “진정한 철학자들의 후예”로서의 사명감 때문이다.<sup>52)</sup> 그가 말하는 진정한 철학정신이란 “언제나 개별 국민의 영광에 앞서 인류 전체의 영광을 고려”하며<sup>53)</sup>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sup>54)</sup> 개인이든 왕이든 또는 국가이든 사치하는 주체는 부도덕하기에 조국과 국민 모두의 근간을 침식하는 원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메르시에가 부당하게 치부한 “고리대금업자, 공금 횡령자, 투기업자”<sup>55)</sup> 등 일부 인사와 귀

49) 『파리의 풍경』, V, 9권, 761장 <색다른 것들>, 244쪽.

50) 『파리의 풍경』, V, 10권, 788장 <트론 방책>, 329쪽.

51) 『파리의 풍경』, I, 2권, 107장 <사치의 신봉자들>, 242쪽.

52) 『파리의 풍경』, IV, 7권, 599장 <진정한 철학자들의 후예>, 210쪽.

53) 『파리의 풍경』, IV, 7권, 594장 <런던시민과 파리의 대조>, 191쪽.

54) 『파리의 풍경』, VI, 12권, 1046장 <현자들>, 523쪽.

55) 작가는 파리의 한 거리에 들어차 있는 대저택들을 보며 다음과 같이 썼다 : “모

죽을 프랑스 “풍속의 가장 큰 적”<sup>56)</sup>이라고 규정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사치는 개인적으로는 부정한 축재의 결과이고 공동체로서는 잘못된 정책 결정의 결과이므로 공중과 조국을 배반하는 비애국적인 행위다. 메르시에에 게 불꽃놀이로 “1년 동안 극빈 가정 100가구의 유지와 양식 조달에 충분할 만큼의 금액”을<sup>57)</sup> 허공에 날려 없애는 일이나 승리의 기념물로 ‘성녀 주느비에브 성당’을 건립하기 위해 40년 동안 수백만 리브르를 쓴다는 것도<sup>58)</sup> 공동체와 공중에 반하므로 비애국적이다. 그에게 애국적인 행위란 공중을 위한 일 뿐이다. 아카데미 프랑세즈 대신 ‘왕립 농업협회’가 설립되지 못한 것을 그가 안타까워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협회의 설립은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풍부한 노동에 의해 왕국의 풍요, 삶의 참된 즐거움, 인간의 행복을 동시에 이루는 위대한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농업협회의 설립으로 “2600만 국민을 먹이고 입히는 일”<sup>59)</sup>보다 더 훌륭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공동체의 운영은 공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국내의 모든 자원은 공중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며, 또 이런 것이 조국에 대한 애국임을 작가는 작품 곳곳에서 주장한다.

---

든 이 새로운 건축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거리! 한눈에도 규칙적이고 장대하다! 우뚝 선 이 저택들은 무엇인가? 누가 거기에 살게 되어 있는가? 일군의 쇠약한 병사들을 병원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옆으로는 한 유녀의 저택이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산이 쌓여있다. (...) 그 건너편에는 조국을 배신한 인물의 저택이 있다. 이 저택들은 화려한 외양을 하고 있지만, 풍요만이 아니라 냉담함으로도 다중과는 별개의 존재임을 드러낸다. 이 건물들 가운데 눈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파리의 풍경』, IV, 7권, 557장 <새 저택들>, 60쪽.

56) “그들은 비밀회의를 열고 고리타분한 시대의 사상을 앞세워 왕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활기찬 사람들이 왕에게 봉사하고 출세하는 길을 막는다. 그리하여 무능한 귀족들이 수많은 자리를 타락시키고, 방탕한 행위로 사회 전반을 오염시킨다. (...)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 대신 자신이 개인적으로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리고 조국을 위한 행동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남의 공을 가로챌 궁리만 하면서 살고자 할 때 모든 종류의 덕성을 질식시키며, 그 자신의 이름을 알릴 만한 정신적인 힘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음모나 꾸미게 되는 것이다.” 『파리의 풍경』, VI, 11권, 944장 <귀족의 자적>, 239-240쪽.

57) 『파리의 풍경』, II, 3권, 223장 <불꽃놀이>, 55쪽.

58) 『파리의 풍경』, VI, 12권, 1039장 <승리의 기념물>, 504쪽.

59) 『파리의 풍경』, V, 10권, 793장 <왕립 농업협회>, 338쪽.

#### IV. 공중교육을 위하여

철학자/작가인 메르시에는 자신이 비판했던 허울뿐인 교육을 넘어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귀족>에 관한 장(章)에서 포착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거의 동일한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된 이후로, 사람들은 누구나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은 사람들을 거의 평등하게 “만들고, “더 이상 모욕적인 차별”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동시대 지식인들과 공유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계몽되고 애국적인” 시민들의 등장으로 “서서히, 그리고 당연하게도 평등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대목에서 ‘애국적’이라는<sup>60)</sup> 표현은 메르시에 이전에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기에, 그리고 『파리의 풍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기에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메르시에가 주장하는 교육의 본질은 애국심이라고 생각한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메르시에는 교육을 통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이고 감성적인 시민, 즉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시민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즉 그가 추구했던 인간상인 ‘완벽한 시민’이란 생기 없고 무미건조한 사람이 아니라 정열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정열적인 사람만이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명석하고 고결한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sup>61)</sup>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공동체의 결합을 굳건하게 하는 선량함, 친절함, 희생, 이타적 감성, 조국애, 박애정신 등을 더욱 고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시에는 이러한 감정의 양상 가운데 자선행위에서 애국적인 감성이 가장 분명하게 발현한다고 여긴다. 특히 런던의 병원을 예로 들며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자선행위는 시민들이 본받아야 할 애국심의 표상이다.

“병원을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자선을 베풀도록 놔두라. 자선은 효험이 있으며, 학술적인 면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60) 『파리의 풍경』, IV, 8권, 650장 <귀족>, 402쪽의 표현들을 재구성했음.

61) L., Berkowe, *op. cit.*, p.500.

런던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관대하고 가장 부지런한 애국심이다.”<sup>62)</sup>

작가는 자선을 종교적인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켰다. 그가 보기에 “숭고하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는 단순한 선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념을 뜻한다. 왜냐하면 자선이란 “창조주의 작품인 피조물이 베푸는 사랑”이고, 그의 품 안에서 “찬사와 경외심, 애정”을 불러일으키며 “불쌍한 사람들에게 제2의 신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63)</sup> 그러므로 모든 자선행위는 “인간의 모든 언어에서 성스런 신의 이름 다음 맨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만한”<sup>64)</sup> 것이다.

물론 현실은 메르시에의 바램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자선협회는 파리에서 가장 훌륭한 단체로서 “노인의 지팡이, 맹인의 눈, 과부의 벗, 고아의 아버지, 아이가 많은 가족의 버팀목, 절름발이의 발, 불구자의 손”으로 불리며 약 1400명의 인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원조하고 있으나 공공선을 소중히 여기는 협회의 구성원이 700여명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며 작가는 애석함을 토로했다.<sup>65)</sup> 작품 전체에 걸쳐 작가가 그려낸 파리인 군상 가운데 애국적 시민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탐욕스럽고, 무자비하며 사회에 무용한 사람들이 관찰의 대상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독자를 향해 구습을 타파할 것을 호소했던 것이 작가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파리의 풍경』을 쓴 작가의 글쓰기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파리의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그의 작가적 소명은 아니었다. 그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sup>66)</sup> 작품 여기저기에 자신의 음성을 담은 구절들을 배치하여 끊임없이 독자의 감성을 일깨우고자 했다. 메르시제가 독자에게 호소한 것은 버코웨이가 훌륭하게 명명한 것처럼 조국애에 비

62) 『파리의 풍경』, VI, 12권, 968장 <에덕 수도회의 수사들>, 304쪽.

63) 『파리의 풍경』, V, 9권, 717장 <유아세례용 흰 천>, 114쪽.

64) 위의 책, 같은 쪽.

65) “애석하구나! 이토록 아름다운 왕국에 인류를 위한 자선가가 이토록 적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파리의 풍경』, VI, 11권, 882장 <자선협회>, 83쪽.

66) “나는 전체적인 그림만을 그렸고, 이것을 넘어서는 일은 공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파리의 풍경』, I, 1권, 『머리말』, xxvi.

릇한 개념인 ‘공중의식(l'esprit public)’으로서<sup>67)</sup>,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공화주의 시민의 덕성, 애국심 등을 말한다. 공교육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던 메르시에가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몇몇 교육 기관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가 생각하는 교육기관이란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학교뿐이다. 예를 들어 수의과 학교는 “항상 인간에게 봉사해 왔고, 언제나 자신의 힘을 써온 당당한 동물의 보존에 크게 기여한 유용하고 주목할 만한 기관”<sup>68)</sup> 이고, 외과 콜레주는 “실용학교 또는 해부학교”로서 설립 자체만으로도 “아무리 찬미해도 지나치지 않을 공적인 선행”이며<sup>69)</sup> “프랑스의 모든 집단 중에서 인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집단”<sup>70)</sup>이다. 메르시에는 공동체의 안녕과 공중의 선을 추구하는 이런 학교들이야말로 공중의식에 직결되는 만큼 애국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sup>71)</sup>

문제는 프랑스인 모두에게 이러한 공중의식을 어떻게 고취하는가이다. 『파리의 풍경』 전체에 걸쳐 공중의식에 투철한 시민은 극소수이지 않았던가? 작가는 이런 점에서 공중의식의 확산 방법을 모색한다.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불굴의 정신과 체력과 천재성”을 갖춘 영국민의 애국심으로서 제도에 의해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기초하여 “정부가 길러준” 자발적인 시민적 덕성이다. 작가가 보기에 “영국민은 창조적이고, 자기의 힘을 느끼는 민족이며, 정치적 상황을 한 번도 감춘 적이 없다.” 영국정부는 국내의 정치상황은 물론 전쟁의 성공과 실패까지 정확히 국민에게 보고하기에 영국민은 “조국이 필요로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재산의 일부를 바친다.” 이렇게 “활기차고 용감하고 당당한 국민의 활동”을 배경으로 영국은 홀로 이웃한 3대 강국(프랑스, 에스파냐, 홀란드)과 세력 균

67) L. Berkowe, *op. cit.*, p.504.

68) 『파리의 풍경』, IV, 8권, 615장 <수의과 학교>, 278쪽.

69) 『파리의 풍경』, IV, 8권, 625장 <외과 콜레주>, 309쪽.

70) 『파리의 풍경』, IV, 8권, 615장 <수의과 학교>, 278쪽.

71) 메르시에는 대혁명 직후 『루소론 *De J.J. Rousseau considéré comme l'un des premiers auteurs de la Révolution*』을 집필하면서 인간이 태어난 것은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 “nous sommes venus au monde non pas afin de préparer notre salut éternel, ni davantage d'orner notre esprit et notre cœur, mais de connaître, d'aimer, de servir notre patrie”. L. Berkowe, *op. cit.*, p.498에서 재인용.

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72)</sup>

메르시에가 파악한 영국민의 애국심은 루소가 『폴란드 정부론』에서 주장한 바처럼 국민교육(l'éducation nationale)에 의해 형성된 그것과 차이가 없다. 루소에 의하면 교육이란 사람들에게 국민적인 양식을 부여해야 하며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을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받은 만큼 당연하게, 기질적으로, 그리고 벽찬 마음을 가진 애국시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sup>73)</sup> 메르시에는 ‘국민교육’ 대신 공중교육(instruction publique)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그가 사용한 이 표현은 학교를 통해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터클을 통해 진정한 애국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중교육의 대표적인 예는 “가장 예절바른 철학으로 깊이 있게 행동했던” 몰리에르의 연극이다.

“우리는 몰리에르가 그의 시대를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존경해야 마땅하다. 그는 사회를 괴롭히던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요소와 수많은 악덕을 바로잡아 주었고, 사회도 그 점에 대해 그에게 고마워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여러 군데에서 품위와 훌륭한 풍속을 훼손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 그는 한결 같이 훌륭한 작품만 쓰지는 않았다. 연극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종의 공중교육과 같다. 공중교육이야말로 연극의 가장 중대한 효과라 하겠다.”<sup>74)</sup>

18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연극양식인 드라마(drame)가 관객의 감수성에 호소하여 개인과 사회의 도덕관념을 정화하고 영혼의 고귀함을 고취시키는

72) 영국과 관련한 내용은 『파리의 풍경』, III, 5권, 445장, 224-225쪽에서 인용했음.

73) “C'est l'éducation qui doit donner aux âmes la forme nationale, et diriger tellement leurs opinions et leurs goûts, qu'elles soient patriotes par inclination, par passion, par nécessité. Un enfant en ouvrant les yeux doit voir la patrie et jusqu'à la mort ne doit plus voir qu'elle. Tout vrai républicain suçà avec le lait de sa mère, l'amour de sa patrie, c'est-à-dire des lois et de la liberté. Cet amour fait toute son existence; il ne voit que la patrie, il ne vit que pour elle ; sitôt qu'il est seul, il est nul : sitôt qu'il n'a plus de patrie, il n'est plus; et s'il n'est pas mort, il est pis.” J. J. Rousseau, *Considérations sur le gouvernement de Pologne, 1771-1772*, p.17.

74) 『파리의 풍경』, VI, 11권, 930장 <몰리에르>, 204쪽.



데 그 목적을 둔 것처럼 메르시에는 연극을 손색없는 공중교육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다. 즉, 진보의 이념에 따라 국민의식을 계몽하고 사회풍습을 개선하고 근대생활의 윤리를 진작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sup>75)</sup> 제도권 교육이 할 수 없는 애국주의 교육, 즉 공중교육을 연극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연극에 대해 작가가 가진 생각은 음악에서도 나타나있다. 메르시에게 음악이란 “지적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며, “최상의 도덕 책”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어서 음악을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킨다. “음악은 풍속을 바꾸고 순화하며 정신을 깊게 만들고 드높여서 자연의 위대한 조화를 인식하게 해준다. 우리가 죽으면 하느님과 음악으로만 말할 것이다. 최고의 음악가는 종교적 존재이다.”<sup>76)</sup>

축제에 관해 메르시에게 설명한 내용은 공중교육의 정점처럼 보인다. 작가는 <잘못된 생각의 교정>에서 루이 14세가 국민을 위해 궁전을 파리가 건설하지 않고 베르사유에 건설한 것을 비판하면서 로마인들의 유익했던 사치, 즉 “원형 극장들을 세우고 그곳에 대중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왜냐하면 대중이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이미지를 숭배하고, 훌륭한 시인의 의무에 충실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축제를 선사해야 하기 때문이다.”<sup>77)</sup>

재미있는 사실은 축제에 대한 작가의 견해는 작품이 쓰인 지 몇 년 후, 미라보가 대혁명 직후 구성된 혁명의회에 제출한 ‘공립학교의 조직에 관한 법률안’ 제 5부의 ‘시민과 군대를 위한 공공축제에 관하여’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즉 ‘법률안’에서 미라보는 “모든 자유인에게 있어 공공축제는 시민들로 하여금 조국에 애착을 갖도록 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들을 우호적인 관계로 서로 연결시키는 데에 효율적이라고”<sup>78)</sup> 생각했던 것이다. 메르시어나 미라보가 시민축제를 주목한 이유는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75) 김기봉(편주), 『프랑스문학 이론과 선언문』, 신아사, 1980, 42쪽.

76) 『파리의 풍경』, VI, 12권, 984장 <성 체칠리아 축일>, 356쪽.

77) 『파리의 풍경』, V, 10권, 767장 <잘못된 생각의 교정>, 264쪽.

78) 정동준, 『프랑스대혁명기의 공교육 계획』, 국학자료원, 2003, 41쪽에서 재인용.

교육수단으로 문맹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또 효과가 즉각적이라는 점” 때문이다.<sup>79)</sup>

대혁명 직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려고 애국심을 강조한 혁명 지도자들의 생각과, 대혁명 이전 파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사회를 갈구했던 메르시에의 생각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 V. 나가면서

우리는 『파리의 풍경』에서 메르시에의 교육론이나 교육철학의 체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본 교육의 현실과 그에 대한 단상을 추적하여 집필 당시 프랑스 교육의 논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물론 당시의 지식인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주장을 전개했기에 메르시에만을 통해 대혁명 이전의 프랑스 교육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을 단순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짧은 글에서 모든 주장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리고 작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파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인상적인 내용만을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했으므로 그의 시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논지를 전개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이 글의 서두에서 우리는 윌리엄 레디나 소피 바니 같은 연구자들이 대혁명 직후 혁명 지도부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랑, 연민, 박애, 인민, 자유, 민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여 공동체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했음을 밝혔다. 즉 이들 연구자들은 이런 공동체 의식과 애국심을 자코뱅의 집권시절에 나타난 고유한 현상이라고 파악했다는 것을 말한다. 부연하자면 이들은 대혁명 이전의 감정사와 이후의 감정사를 별개로 여겼거나 혁명기의 감정사에 매달려 이전 시대의 감정사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혁명정부가 주도

79) 윤선자, 『축제의 정치사』, 파주, 한길사, 2008, 161쪽.

한 과도한 감정의 과잉은 『파리의 풍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대혁명 이전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대혁명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감정사는, 비록 자코뱅의 과도한 의지가 반영되어 과잉으로 나타나기는 했어도, 단절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된다.

혁명정부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루소의 감상주의, 특히 공동체와 애국심에 대한 논의가 1780년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특히 『폴란드 정부론』의 교육에 관한 4장은 『에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공화주의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집필되었는데 이 내용은 『파리의 풍경』에 고스란히 스며있다. “볼테르나 루소의 저술보다 훨씬 더 성공을 거둔 초대형 베스트셀러”<sup>80)</sup>였던 이 작품의 위상을 고려할 때, 즉 수많은 독자들이 이 작품을 읽었다고 가정한다면 루소의 감상주의는 당시 프랑스 독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어 그들이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다. 메르시예가 작품의 서문에서부터 애국심을 강조한 것, 많은 분량의 작품에서 틈틈이 루소가 말하는 공화주의 시민의 덕성, 공동체, 박애, 자기희생, 이타적 행위 등을 독자에게 호소한 것도 작가 스스로 루소의 제자임을 공공연히 주장했기에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루소의 사상을 확산하려는 작가의 숨겨진 글쓰기 의도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작가가 말하는 교육의 내용은 분명하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교육은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의식,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 즉 공중교육이다. 공화주의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연극, 음악, 축제 등이 메르시예가 1780년대, 더 나아가 『서기 2440년』을 집필할 무렵인 1771년부터 추구했던 진정한 교육이었던 것이다. 물론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다룰 수 없었던 내용도 있었다. 도로 청소부이든, 석수든, 목수든, 공중을 위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공화주의 시민의 덕성을 획득하도록 유도하는 것, 공동체를 위한 애국적인 교육기관을 옹호하는 것 등도 메르시예가 말하는 교육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다음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내용이다.

80) 『파리의 풍경』, 1, 「역자 서문」 참조.

## ■ 참고문헌

※ 출판지가 대한민국 서울과 프랑스 파리인 경우 표기를 생략했음

- 김용민, 「플라톤과 루소의 시민교육론 연구 - 『법률』과 『에밀』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4), 2017.
- 김태훈, 「18세기 프랑스에서의 ‘사치 luxe’에 대한 논쟁 : 볼테르, 루소, 디드로의 견해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99집, 2014.
- 단턴, 로버트, 『책과 혁명』, 주명철 옮김, 도서출판 길, 2004.
- 메르시에, 루이 세바스티앵, 『파리의 풍경』, 이영림 외 옮김, I-VI 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모르네, 다니엘,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 주명철 옮김, 민음사, 1993.
- 루소, 장 자크, 『에밀』, 김중현 옮김, 한길사(그레이트북스 57), 2003.
- \_\_\_\_\_, 『신엘로이즈』, 서익원 옮김, 2권, 한길사(그레이트북스 58), 2008.
- 레디, 윌리엄 M, 『감정의 항해』, 김학이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 보이드, 윌리엄, 『루소의 교육이론』, 김안중/박주병 역, 파주, 교육과학사, 2013.
- 윤선자, 『축제의 정치사』, 한길사, 2008.
- 정동준, 『프랑스대혁명기의 공교육 계획』, 국학자료원, 2003.
- 정해수·장연옥, 「Louis Sébastien Mercier의 『파리의 정경』과 『서기 2440년』에 나타난 여성, 그리고 프랑스대혁명」, 『프랑스학연구』, 제 58집, 2011.
- 조일수,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제 106호, 2016.
- 주명철,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어가 겪은 혁명」, 『서양사론』 제 125호, 2015.
- Benrekassa, Georges, “Utopie des Lumières”,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t.6, Paris, Editions Sociales, 1976.
- Berkowe, L., “Louis-Sébastien Mercier et l’éducation”, *MLN*(Modern Language Notes), Vol.79 No.5, 1964.
- Boucher, Geneviève, *Histoire, Révolution et esthétique. Le temps et ses représentations dans le Tableau de Paris et le Nouveau Paris de Louis*

- Sébastien Mercier, These, Univ. de Montréal/Univ. Paris-Sorbonne, 2009.
- Coulet, Henri, *Le roman jusqu'à la Révolution*, Colin, 1991.
- Goulemot, Jean M., *La Littérature des Lumières*, Bordas, 1989.
- Launay, Michel/Mailhos, Georges, *Introduction à la vie littéraire du XVIIIe siècle*, Bordas, 1969.
- Lepan, Géraldine, *Jean-Jacques Rousseau et le patriotisme*, Honoré Champion, coll. « Les Dix-huitièmes Siècles », 2007.
- Mauzi, Robert, *L'idée du bonheur dans la littérature et la pensée françaises au XVIIIe siècle*, Arman Colin, 1965(1re éd. 1960).
- Mercier, Louis Sébastien, *L'an deux mille quatre cent quarante*, Londres, 1771.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6571684d/f7.image>  
(검색일: 2019.02.10)
- Provost, Auderey, *Le luxe, les Lumières et la Révolution*, Champ Vallon, 2014.
- Roche, Daniel, *La France des Lumières*, Fayard, 2008.
- Rousseau, J. J., *Considérations sur le gouvernement de Pologne, 1771-1772*.  
[http://www.espace-rousseau.ch/f/textes/considerations\\_pologne.pdf](http://www.espace-rousseau.ch/f/textes/considerations_pologne.pdf)  
(검색일: 2019.02.10)
- Thilier, Guy, “Louis-Sébastien Mercier devant l'Administration de son temps”,  
*La Revue administrative*, 10e Année, N° 55, JANVIER FÉVRIER 1957.
- Versini, Laurent, “Le roman en 1778”, *Dix-huitième siècle*, n°11, 1979.
- Wahnich, Sophie, *Les émotions,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 présent*, CNRS Éditions, 2009.

❖ ABSTRACT

Educational reality and emotional education of the  
1780s in the *Tableau de Paris*

Chung, Haisoo  
Jang, Yun-wuk

This writing is not written to examine Mercier's educational theory or philosophy of education. It is rather because the writer has often made contradictory claims throughout his work, we think he is unable establish a coherent system of ideas. In this paper, we focused examining only the fragmentary thoughts of the writer on education that was presented in the work *Tableau de Paris*. We had to identify the point related to education in the 1780s when this work was written. If the writer tends to deal with public and private habits, dominant thoughts of the time, things that would impress people such as the current situation of Paris in his own work, we can tell that this theory included an idea of the various happenings that have emerged in that era, especially the content related to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peated message throughout the *Tableau de Paris* inspire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patriotism. From a point of view, the work gives an impression that it recorded the history of emotions of the era during the 1780s. However, the history of emotions being stated here is not seen as different from what Rousseau claims. Mercier was strongly influenced by Rousseau, in a way that what Mercier pursued in his work could reflect Rousseau's idea, which is seen as an example of the virtue of the Republican citizen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virtue of the Republican citizens, which Mercier expressed, almost coincides with the virtue of the citizens which the Revolutionary Government claims immediatel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In this sense, the history of emotions can be said to be consistent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French Revolution, and what Rousseau and Mercier have argued about regarding the education is the way of cultivation of the Republican citizens and its methodology.

Key Words : Louis Sébastien Mercier, 18th century history of emotions, Republican citizen, patriotism, public education

- 논문접수일 : 2019. 02. 10
- 심사완료일 : 2019. 03. 01
- 게재확정일 : 2019. 03. 11

